

첫 이삭 절기

신명기 16:9-12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신 것은 세가지입니다. 율법과 성막 그리고 제사법입니다. 이것은 노예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삶에 대한 기준과 신앙 생활,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출애굽기와 신명기에는 특별히 제사법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중요한 3대 절기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무교절(유월절), 맥추절(칠칠절), 수장절(초막절)으로써 무교절은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에서 탈출하던 유월절과 같은 절기로, 이 때는 짐승의 첫 태생을 드리며 일주일간 누룩을 넣지 않은 빵과 쓴 나물을 먹으며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주간입니다. 맥추절은 무교절 후 7주간의 시간을(칠칠절) 보내며 하나님이 주신 첫 열매를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수장절(초막절)은 우리가 현재 추수감사절로 지키는 절기로 가을 추수 후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과거의 기억과 미래를 향한 기대 사이에서 형성됩니다. 유월절 출애굽의 기억은 맥추절로 상징되는 미래 추수에 대한 기대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과거의 기억이 우리에게 미래를 향한 확신, 즉 믿음을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구속사 적으로 맥추절은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합니다. 맥추절이 하나님이 주신 첫 열매를 드리는 시기인 것처럼 예수님은 바로 그 첫 열매이셨습니다. 이는 앞으로 있을 수확 즉 성도들의 부활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것입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고전15:23) ▶맥추절의 유래는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넌 후 길갈에서 지킨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멘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멘 제사장들의 발이 물 가에 잠기자.”(수3:15) ‘모맥 거두는 시기’는 보리 추수 때를 상징합니다.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수5:12) 요단강을 건너는 시점에 그들은 가나안의 소출을 먹음으로 이전과 단절되고 새로운 시작을 경험하였습니다. ① 그들을 인도하던 모세도 없었습니다. ②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던 것도 사라졌습니다. ③하늘의 양식인 만나도 끊겼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큰 부담의 시기였고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하였습니다. 작은 승리와 작은 성취에도 그들은 감사하였습니다. 지금 눈 앞에 여러 고라는 난관이 그들을 기다렸지만 그래도 그들은 감사하였습니다. ▶맥추절은 하나님이 앞으로 행하실 일에 대한 감사의 시간입니다.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은 믿음의 행위입니다. 우리의 쓸 것을 남기고 드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구별하는 바치는 것입니다. 사르밧 과부는 이 정신을 가장 잘 드러내었습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너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왕상17:13-14) 이것은 온전한 믿음의 행위입니다. 유월절은 기억, 초막절은 감사, 엄밀한 의미에서 맥추절은 선행감사로 첫 수확을 통해 앞으로 있을 수확을 대표하며 이에 감사하는 행위입니다. 이것은 법궤를 메고 요단강에 첫 발을 내딛는 용기와 같습니다. 그 첫발을 통해 강물이 멈추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게 되었습니다. 첫 예물에 대한 우리의 감사는 곧 다음에 이어질 열매에 대한 우리의 확신이며, 주실 하나님에 대한 선행 감사입니다. 이것은 이미 주어진 것에 대한 감사와 동일한 감사이며 그렇게 우리의 믿음은 성숙하고 성장하게 됩니다. 가장 좋은 것, 가장 첫 번째의 것은 하나님께 그려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정신입니다. 하나님을 것을 먼저 구별하는 믿음. 맥추절은 우리에게 이 믿음을 가르쳐 줍니다.